

Kor Monday Morning Video: June 15, 2020

로마서 (Romans) 5: 3b -4a

한번은 제가 교인들에게 눈꺼풀 안쪽에 이 성경구절을 문신하고 싶다고 했더니: “ ...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 로다.” 맞습니다, 교인들이 눈꺼풀 안쪽에 문신하는 것을 상상하는 것조차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우리를 소망의 장소로 이끌어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적어도 3개월 동안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는 자택 격리령속에서 아니면 한정된 상황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어떻게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홈 스쿨링을 받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 “따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한 새로운 변화와 간절한 소망 등 여러가지의 역사적인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염병까지 있습니다.

신약 헬라어에서 환난은 불안해하고 혼란스러워하며 화를 내며 깜짝 놀란다는 것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울부짖고 비명을 지르기를 원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대전통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 후회되는 것, 슬픈 일에 대해 애통해 하는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애통해하는 일을 잘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애통하기보다는 불평을 더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불평을 하다 보면 기도를 못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불평하기보다는); 이것은 이 시대의 영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슬픔을 주님께 맡기세요. 당신의 인종차별의 죄에 대해 외치십시오. Covid-19 로 인한 것이 아닌 모든 것에 대한 상실과 슬픔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나 환난은, 이 성경구절에서, 인내를 길러준다고 했습니다. 그리스어의 인내는 큰 스트레스를 받고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는 어깨에 견디기 어려운 짐을 메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지역사회와, 심지어 국가적으로 경험한 모든 변화와 잃어버린 손실의 무거운 무게를 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조차도 혼자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시몬 사이렌이 고난 중에 있는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를 메 주었습니다. 여인들과 제자 요한이 예수님 옆에 있었습니다. 그가 혼자 감당하도록 놓아 두지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서로 도와야 합니다. 조금 더 친절 하십시오. 싸인들 (Signs)이 우리들에게 친구나 나이 드신 가족들에게 연락하라고 상기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인내가 우리 인격을 연단(단련) 시켜줍니다. 여기 주목할만한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연단을 번역하면 조각입니다. 조각 도구를 가진 사람은 금속 또는 다른 표면에 이미지를 조각합니다. 연단은 무엇이 새겨진다는 의미입니다. 글쎄요, 누가 여러분의 삶의 조각이 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누구의 성품이나 이미지가 새겨 지기를 원하세요?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의 원하는 영혼에 새겨질 인물이나 이미지가 예수님 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조각가이고 우리 위에 새겨진 조각입니다. 우리 연회의 전략적 목표 중의 하나는 제자들을 키우는 것입니다; 예수를 더 닮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합니까? 예수를 더 닮아 간다는 것은 기도와 성경공부로 새겨지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성품을 조각하시도록 하세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소셜미디어에 쓰고 있으며 그것은 때때로 우리 영혼에 예수가 새겨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친구와 멀어지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누가 당신의 영혼에 조각을 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새겨지는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연단은 우리가 소망을 이루는 줄 얹어 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랍비 친구가 한번은 다음 주일에 무슨 설교를 할지를 물어 본적이 있습니다. . 제가 “소망”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손을 번쩍 들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여러 면에서 좋은 질문이기에 제가 웃었습니다. 소망은 종종 애매모호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고 꼭 집어서 뭐라고 명확하게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사실 고대 히브리어성경 원문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다” 고 했습니다.” 저는 내 생각은 다르다고 말하며 시편에서 기억나는 몇 구절을 줄줄이 외웠습니다:

-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 (시편 42: 5)
-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 5)

이 구절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나는 나중에 히브리성경에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121 구절에서 129번 사용한 것을 세어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소망이라는 단어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그것이 영어로 소망으로 번역된 것에 동의 하면서도 그 본래의 뜻은 실제로 집중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려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소망은 의도적이고 영적인 방향을 제시합니다. 나의 친구 랍비는 또한 특히 욕기, 시편, 이사야 에서 종종 굴욕적인 포로가 된 시기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시편에서 그의 적들에게 쫓기는 상황에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춤으로 굴욕과, 상실, 패배, 불확실성을 이겨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 소망이 없으면 - 심야, 광야, 안개 속 같은 격정과, 집착의 깊은 밤, 증오와 두려움에 빠져 길을 잃게 됩니다.

제 친구 랍비가 설명하기를 또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초점을 맞추고 소망을 갖을 수 있는지 알려주는 구체적인 계명이 있는데 - 미츠바 행하기 또는 선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친절함과 선행을 이행하므로 소망을 가져 오는 것입니다. 그후에 랍비 요나단 삭스(Jonathan Sacks)의 인용문을 보내 주었습니다.

유대인이 되는 것은 희망의 에이전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예식, 모든 계명/선한 행동은 현실도피나, 체념, 혹은 운명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세상에 이루어져야 할 그러나 아직 도래하지 않은 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줄지어 오는 환란의 길에서, 인내의 눈물로 적셔진 길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진 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로 덮인 길에서, 이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소망의 집으로 우리를 데려오도록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내 눈꺼풀 안쪽에는 문신이 없지만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에 이 길은 소망으로 가는 확실한 길입니다. 아멘
(Amen!)